

## 명덕상 수상 윤호일 화우 대표변호사

박형연 / 변호사

이번 서울지방법변호사회 창립 103주년 기념식에서 서울지방법변호사회는 법무법인 화우의 대표변호사님으로 계시는 윤호일 변호사에게 명덕상을 수여했다. 명덕상은 서울변호사회가 회원들에게 수여하는 포상 중에는 가장 크고, 영예로운 상이다. 인터뷰를 하기 전에 나 자신도 명덕상이 궁금하여 서울지방법변호사회 포상규정을 살펴보니, 제3조에서 명덕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명덕상은 30년 이상 변호사 업무에 종사하여 회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고 회의 발전과 회무수행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여 법조인의 귀감이 된다고 인정하는 회원에게 수여 또는 추서한다."

이런 상을 윤호일 변호사님이 받으신 것이다. 나도 법조인이다 보니 법적 근거를 확인하니, 마음이 놓이고 명쾌해진다. 인터뷰를 하기로 한 약속장소인 아셈타워 34층, 법무법인 화우 대회의실에 도착하니, 한눈에 한강과 강남의 경치가 펼쳐진다. 전망이 좋아 하늘에 떠서 인터뷰하는 기분이다. 인터뷰 장소 때문이라도 인터뷰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다. 그때 때마침 인터뷰를 할 윤호일 대표변호사님이 절제된 미소를 보이시며 회의실로 들어오셨다.

변호사님, 다시 한 번 명덕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서울지방법변호사회의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시민과변호사'에서 변호사님을 '이 달의 법률가'로 선정한 중요한 이유는 명예로운 명덕상 수상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첫 질문은 변호사님의 수상소감을 듣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명덕상은 서울지방법변호사회가 수여하는 가장 큰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저에게 이런 큰 상을 주신 서울지방법변호사회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조인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하였고, 특히 공정거래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한국경쟁포럼 회장,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 등 주어진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최근 1년 남짓 전공별 커뮤니티(공정거래 분과) 위원장으로서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미력을 기울여 타 커뮤니티의 모범이 된 점이 수상의 이유라고 들었습니다.

국가와 사회로부터 많은 것을 부여받은 법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상을 받게 되어 축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국가와 법조계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라는 의미로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의 명덕상 수상에는, 변호사님이 30여년간 대한민국 공정거래분야의 최고전문가로서 활약하신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아시아경쟁연합(ACA) 회의에서 이 단체의 초대 회장, 그것도 그동안의 공동회장체제가 아닌 단일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취임사에서 "지금까지 세계 공정거래법 분야는 130년 역사를 가진 미국과 60년 역사를 가진 유럽연합(EU)이 양대 축을 형성해 왔다"면서 "앞으로 아시아도 사회·경제·정치적 발전에 상응하여 세계 공정거래법 질서의 형성과 유지에 미국 및 EU와 똑같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ACA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그 계획이나 비전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는 ACA를 통해 한·중·일을 포함한 아시아에서의 경쟁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경쟁법과 경쟁정책에 관한 공동연구 및 국제교류,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쟁법제도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등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쟁법의 역사는 130년의 역사를 가진 미국과 60년의 역사를 가진 EU가 세계 경쟁법 분야의 양대 축을 형성하여 주도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시아는 그 역사가 짧고 미약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현재 공정거래법이 비교적 잘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평판입니다만 1981년에서야 도입되었습니다. 일본은 최근에 비로소 공정거래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국은 2008년에야 비로소 공정거래법이 도입되어 아직까지 연구내용과 깊이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아시아도 사회·경제·정치적 발전에 상응하여 세계 경쟁법 질서의 형성과 유지에 미국 및 EU와 함께 똑같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ACA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호일 변호사님 하면, 공정거래 분야의 최고전문가란 수식어가 항상 따라 다닙니다. 지금은 공정거래법이 가장 돈이 되는 분야로 자리매김하였지만, 변호사님이 공정거래 분야에 관심을 가지실 때는 돈이 되는 분야라기보다는 오히려 공익적인 분야, 인기는 없지만 반드시 누군가가 해야 하는 법 분야로 기억하는데, 공정거래 분야에 관심을 가지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공정거래법이 일찍이 발달한 미국에서 70년대와 80년대에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후 80년대 말에 귀국하여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90년대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가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하는 초기 단계였습니다.

제가 공정거래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중요한 이유는 경쟁법의 발달과 경쟁문화의 확산이 사회의 진보와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는 데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공정한 룰에 의하여 경쟁을 열심히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소비자나 기업, 사회 전체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를 실현하고자 관련분야를 연구하고 실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변호사님의 옛날 시절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변호사님은 1965년 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신 이후에 짧은 판사 생활을 하시다가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선택하신 후 바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대학시절 변호사님의 꿈, 그리고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겠다고 결심한 이유에 대하여 말씀 좀 해주시죠.

"대학시절의 꿈은 여느 4·19세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언젠가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법원도 권위주의적 제약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판사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유학을 간 것은 선진법률과 문화를 배우고 익혀 우리나라의 법률문화 발전과 법치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법률가로서 활동하고, 특정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변호사가 되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유학을 가셔서 노틀담 대학교(로스쿨)을 졸업하시고, 미국변호사 자격을 따신 이후에 보통은 국내로 돌아오시는데, 변호사님은 또 남들과 다르게 베이커 앤드 매켄지(Baker & McKenzie)에서 10여년 미국변호사로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왜 바로 국내로 돌아오시지 않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변호사 활동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와 미국변호사 생활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노틀담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동안 토론식으로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Law Review의 Editor의 일도 재미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매혹된 것은, 미국 사회에서 법조인과 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 같이 느끼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JD학위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선진법률과 문화를 익히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노틀담 로스쿨에서 JD를 취득한 동시에 당시 세계 최대 로펌인 Baker & McKenzie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며, 6년만에 파트너로 승진한 후 10년 동안 파트너로 일하였습니다. 현재도 변호사 숫자 기준으로 세계 최대 로펌으로 알려진 Baker & McKenzie에서 다양한 사건을 맡으면서 선진국의 법률서비스와 법률문화를 습득하였으며, 미국 등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뿐 아니라 한국기업의 미국 등 외국진출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그리고 주류 미국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미국 국민이 높은 수준의 법의식을 가지고 법의 지배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으며, 성공은 본인 자신의 노력에 의하여야 한다는 성공관을 가지고 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인교회의 주일학교 교사, 한인사회봉사회와 한국학교 이사, US-Korea Society 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미국 사회와 그 속에서 자라고 있는 한인 사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국내로 들어오셔서, 법무법인 우방을 설립하셨는데, 10년 미국변호사 생활을 청산하게 된 계기를 좀 들려주시고, 돌아오셔서 법무법인 우방을 사실상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로펌의 태동기라고 보여지는데 그 당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전관으로서 민·형사 사건을 하는 일반 법률사무소가 아닌 섭외관련 사건을 하는 로펌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의 법조계 분위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로서 활발히 활동하던 중 1987년 6월 항쟁 이후 한국에서 권위주의가 청산되게 된 후, 한국에 세계적인 수준의 로펌을 설립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하여 16년의 미국에서의 변호사 생활을 정리하고 1989년에 귀국하였습니다. 함께 귀국한 변호사 2~3명이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 법무법인 우방 (Yoon & Partners) (처음에는 '세방법률사무소'라 하다가 명칭변경하였음)를 설립하여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방은 당시 크지 않은 규모로서는 상당한 규모의 의미 있는 사건들은 많이 처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로펌도 순조롭게 성장·발전하였습니다. 미국 굴지의 로펌에서 경험한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의 제공이 고객에게 감동을 주고 자연스럽게 실력 있는 로펌으로 업계에 알려졌으며, 때마침 외국기업의 국내진출과 국내기업의 외국진출이 증가하여 국제적인 업무도 늘어났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후 2003년 '법무법인 화백'과 합치고 2006년에는 '법무법인 김·신·유'와 합쳐서 현재의 '법무법인(유) 화우'를 탄생시켰습니다."

변호사님은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우방의 대표변호사였다가 지금은 M&A로 몸집이 훨씬 커진 화우의 대표변호사로 계십니다. 지금 대한민국 로펌은 M&A를 통하여 몸집불리기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고 할 정도로 규모경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변호사님의 경력을 보면, 규모보다는 공정성, 가장 화려한 길보다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걸어오셨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한국로펌의 나갈 방향, 그리고 변호사님이 대표로 계시는 화우의 나갈 방향에 대하여 말씀 좀 해주십시오.

"화우에서 추구하는 경영목표는 ①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여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② 윤리규범을 숭선수범하고 ③ 로펌 내에서나 제3자와의 관계에서 민주적 인간관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 한국에 기반을 둔 세계적인 로펌 (World Class Law Firm)을 만드는 것이 화우의 vision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화 심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형화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로펌이 장기적으로 우수하고 유능하며 윤리의식이 투철한 법조인을 배출하고, 이를 통하여 사회의 법의식 수준 및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은 요즘 국내 법인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해외사무실 개척에 요즘 주력하고 있는데, 타시гент 사무실이 성공을 거둔 편이고, 앞으로 중앙아시아, 러시아, 중국, 동남아로 해외사무실을 확대하여 갈 생각입니다."

현재 법조계는 큰 변혁기라고 생각합니다. 법과대학의 폐지, 사법시험의 폐지와 로스쿨제도의 시행, 로펌의 대형화, 법률시장의 개방 등 과연 한국법조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여 갈까 참 예측하기 힘든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로스쿨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것인지, 아니면 일

본처럼 표류할지 여부는 모든 사람의 관심사라고 할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 갔더니, 로스쿨이 실패하고, 다시 법과대학 체제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언하는 선배법조인들도 계시더라고요. 윤 변호사님은 법조계의 대선배로서, 대형로펌의 대표변호사로서 로스쿨제도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로스쿨제도는 장기적으로는 제대로 정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학부에서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인재들이 로스쿨에서 법을 공부하면 전문성을 배양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또한 주입식·암기식 교육이 아닌 외국의 로스쿨처럼 사례중심 교육을 하면 창의적 사고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성장, 세계화와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법률시장 개방이 본격화될 때에는 한국법률시장의 규모는 현재보다 2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스쿨을 통하여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이들이 법률분야뿐 아니라 국내의 다른 분야는 물론이고 국제기구 참여, 우리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등 국제적인 분야에서의 활동도 맡게 될 것입니다.

현재 로스쿨 1, 2학년을 대상으로 법원에서 실무수습을 실시하여 본 결과, 상당히 우수한 인재들이 많고 리걸마인드를 갖추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성공한 분들이 자서전을 남기지 않는 문화에 대해서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나 경제인들 중에는 자서전을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윤 변호사님처럼, 초기에 국제로펌을 개척한 법조선배들이 자신의 삶을 자서전으로 남겨놓으면 사료로서의 의미, 후배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자서전, 혹은 삶의 기록을 남길 생각은 없으신 것인지?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님의 지금까지의 일생을 돌아보시면서, 변호사님이 의지하여 오신 삶의 화두(생의 모토)가 무엇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자서전을 남기는 것에 관하여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변치 않을 저의 삶의 화두는 ① 하나님을 잘 믿고, ②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③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며, ④ 봉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윤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 분이 조용한 판사타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는 목사님 같은 느낌이 나는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때 옆에 배석한 도경이 법무법인 화우 실장님이 윤 변호사님이 자기 입으로 말씀하시기에 쑥스러워 말씀하지 않고 계시는데, 로펌 내에서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활동을 젊은 변호사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그밖에도 사회적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대표변호사님 칭찬을 해주셨다. 내가 웃으면서 실장님에게 그런 숨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배석을 허락한 것이니, 앞으로도 계속 끼어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다음 질문을 하였다.

저도 변호사지만 주위에서 변호사는 은퇴가 없어서 좋다, 평생 할 수 있어서 좋겠다는 말을 하는데.... 로펌의 경우에는 은퇴계획이란 것을 만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 은퇴플랜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변호사님의 은퇴계획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 은퇴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변호사가 원하면 언제든지 은퇴할 수 있고, 또 본인이 나이가 들어도 로펌에 기여할 수 있으면 일찍 그만둘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언제 은퇴할지 모르지만, 변호사 은퇴 후에는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① 봉사와 기부문화의 확산과 ② 경쟁문화의 확산을 위한 활동을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행할 예정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기심에 기초한 경쟁이고, 또 하나는 이타심에 기초한 봉사와 기부입니다. 봉사와 기부를 조장하고 경쟁의 올바른 규칙을 만들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제가 83학번입니다. 법과대학을 들어갔을 때 고시수기집인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이란 책이 인기 있었습니다. 변호사님은 다시 태어나시면, 다시 법조인이 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을 가고 싶은지 좀 말씀해주세요.

"법조인으로서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짧은 판사 생활, 10년 넘는 미국 유학과 미국로펌 생활,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변호사 생활을 할 때 그 많은 순간 중에 어느 생활이 가장 만족스러우세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만족스러워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웃음). 그 이유는 제 생활이 실제적으로 점점 더 좋아져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신앙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항상 긍정적으로 삶의 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점점 더 행복을 느끼는 것이지요."

'시민과 변호사'에는 '그대에게 권하는 책'이란 코너가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저희 후배법조인들이나, 일반 시민들, 아니면 변호사님 자신에게 제일 권할 만한 책 한 권 소개해주세요. 그리고 그 선정의 이유도 듣고 싶습니다.

"저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은 '성경'입니다. 저의 인생의 모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에 관한 모든 교훈들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점점 윤 변호사님이 아닌 윤 목사님과 인터뷰를 한다는 생각이 들자,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비록 내가 교회는 다니지 않고 있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중심잡힌 자세를 보면 마냥 부럽기만 하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에 매진하는 이유를 짐작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의 시대와 달리 지금의 젊은 변호사들은 좋은 시절이 아니라 어려운 시절을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젊은 법조인들에게 대선배 변호사로서 좋은 조언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인터뷰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젊은 변호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저의 삶의 모토와도 같습니다. 법조인으로서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며, 주어진 것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사무실 이야기 할 때는 길게 이야기하지만, 자신을 이야기할 때는 간명하고 짧게 이야기하신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 안에서 단순한 삶을 추구하신다는 자신의 삶의 자세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데 기분이 좋아진다. 다음에는 인터뷰가 아니라 술을 한 잔 곁들이면서 못 다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향기 나는 꽃도 매력적이지만 향기 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더욱 매력적이다. 나도 그런 향기를 풍겨야 할 텐데.....